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 오중흡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공군 제 813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조선인민군 공군 제813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하였다.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휘날리고 있는 군부대에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신뢰심에 기초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세차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영접보고를 받으신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시찰의 길에서 만나시였던 지휘관 박성호동무가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무엇을 하고있는가고 물어주시며 웃단위 일군으로 성장한 그의 사업성과를 축복해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군사대상물들과 전투기술기재, 비행사들의 침실, 학습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부대의

경계근무수행정형과 훈련, 전투동원준비 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군부대에서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면서 적들의 변화된 전쟁방식과 전투행동준법, 무장장비의 발전추세에 맞게 우리 식의 전법과 전술을 능란하게 활용하여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수 있도록 머리를 쓰고 사색하고 실천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비행사들이 싸움준비이자 훈련이고 훈련이자 싸움준비라는것을 자각하고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억세게 준비하고있는데 대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이어 지휘소에 오셔서 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에 참가한 비행사들은 출격명령이

내리자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잡고 쏘살 같이 하늘높이 날아올라 평시의 훈련을 통하여 다져온 자기들의 높은 비행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가는 우리 공군의 위력을 과감하게 떨친 용맹스러운 훈련을 보시고 모든 비행사들이 하늘의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준비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축하하시였다.

참고참아온 분노, 다지고다져온 백승의 힘을 떨치며 복수의 불을 토하게 될 결전의 시각을 기다리고있는 미덥고 자랑스러운 비행사들이 한몸그대로 육탄이 되어 사회주의조국의 신성한 평공을 철벽으로 지켜가고있는데 대하여 거듭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이날 군

부대의 혁명사적지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혁명사적비, 병실, 우물을 비롯한 사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해방후 짧은 기간에 항공대건설의 거창한 위업을 이룩하시여 우리 조국을 원수들의 침공으로부터 지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군부대군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자취가 어려어있는 혁명사적지를 원상그대로 영구보존하기 위한 사업에 자기들의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는데 대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군부대군인들이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조국을 무장으로 튼튼히 보위하는 길에서 자랑스러운 공군을 세워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

을 찍으시였다.

군부대군인들은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최전방격전장을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찾고찾으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초소에 오시여 크나큰 사랑과 영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걱정의 환호를 터치는 군인들에게 오래도록 손을 저어 따뜻한 답례를 하신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지휘관들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건강하여 훈련을 더 잘하려고 당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부대를 찾아오시여 증대에술소조공연을 보시였는데 다시 오는 날 자신께서도 예술소조공연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였다.

본사기자

## 특색있게 꾸려진 해내외동포봉사기지

### 고려동포회관 개관식 진행



풍치수려한 평양의 만경대 지구에 해내외동포들을 위한 고려동포회관이 새로 일떠섰다.

고려동포회관은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이 서로 만나 회담도 하고 통일행사와 모임도 하면서 혈육의 정과 뜻을 함께 나누는 현대적인 통일활동봉사기지이다.

3 394㎡의 연건평에 여러 개의 면담실, 200여석의 다목적행사장, 식당, 청량음료매대, 기념품매대들이 그르르 갖추어진 고려동포회관은 평양을 방문하는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의 편의를 충실히 보장해줄수 있게 훌륭히 꾸려졌다.

회관 1층의 넓은 홀에서는 사진전시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와 문화활동을 진행할수 있으며 대중식사실, 동석식사실들이 갖추어진 2층에서는 해내외동포들이 민족의 향취를 느끼는 음식들을 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게 되어있다. 100여석의 다기능회의실이 있는 3층에서는 각종 통일행사와 회의, 면담 그리고 연회도 할수 있다.

사적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평양의 만경대 지구에 고려동포회관이 훌륭히 일떠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어 기쁨을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발언자들은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통일의 방도도 허심하게 나누며 혈육의 정을 두터이 해나가는 고려동포회관이 훌륭히 일떠설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주석님의 유훈을 받들어 민족대단합의 정치, 통일애국의 정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배려의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려동포회관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잘 꾸리고 관리운영을 잘해 나감으로써 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해내외동포들의 기대에 보답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개관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고려동포회관을 돌아보았다.

해내외동포들의 사랑을 받는 고려동포회관. 오늘 고려동포회관은 해내외동포들이 즐겨찾는 친근한 집으로, 종합적인 통일활동봉사기지로 겨레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고있다.



11월 8일, 해내외동포들의 기대에 보답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개관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고려동포회관을 돌아보았다.

해내외동포들의 사랑을 받는 고려동포회관. 오늘 고려동포회관은 해내외동포들이 즐겨찾는 친근한 집으로, 종합적인 통일활동봉사기지로 겨레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고있다.

개관식에서는 축하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혁명

을 반대하는 초불투쟁이 확대되고있다.

4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나라당》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책동을 규탄하는 초불집회가 진행되었다.

## 《자유무역협정 반대한다!》

###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 항의투쟁 전개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 5 000여명이 3일 서울 여의도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를 위한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참가자들은 《한나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기어이 통과시키려 하고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협정체결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로부터 인민들의 항의투쟁이 날로 확대되고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민중의 생존권을 외세에 통째로 넘겨주는 협정체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에 나섰다. 시위자들은 《국회비준 강행하는 한나라당 박살내자!》, 《자유무역협정 반대한다!》고 웨치며 《국회》를 향해 행진해갔다.

시위자들은 물대포를 쏘아대며 폭압에 날뛰는 파쇼경찰들과 맞서 완강히 싸웠다. 각계층 인민들의 격렬한 항의투쟁에 의해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를 취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날 저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초불집회가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2일에도 각계층 군중이 《국회》앞에서 협정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초불집회를 가지였다.

또한 남조선에서 사대매국적인 미국남조선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비준

이라고 그들은 경고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민족을 위해 한것이 하나도 없는 당국은 더는 민족을 위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인민들이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 망국적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막아내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이날 부산에서도 초불집회가 있었다.

집회참가자들은 《자유무역협정》의 부당성을 성토했으며 그의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의지를 표명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적저항의 초불이 전지역에서 타오르고있다》, 《지난 미국산 소고기수입매와 같은 규모로 초불투쟁이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있다》고 보도

하였다. 한편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5일 서울 중구에서 초불집회를 가지였다.

6일에도 이곳에서 초불집회가 계속되었다. 남조선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협정체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이 참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중, 고등학교학생들까지 투쟁에 나섰다 하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의 책동을 저지시킬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본사기자



# 겨레의 마음속에 빛나는 영상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중국의 마오쩌둥주석과 화기에 예한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나누시는 사진이다.

보편 불수륙 조종권선의 강화발전과 인류사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세계의 정치원로, 불세출의 대성인의 기록한 모습이 어려온다.

두 나라의 형편과 국제정치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이 오고간 상봉식상에서 마오쩌둥주석은 세계적위인인 김일성주석동지와 가장 친근한 전우, 형제관계를 맺고 혁명간담을 무한한 행복으로 생각한다고, 세계혁명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가 주석동지의 어깨 위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부디 건강하시라고 축원의 인사를 올렸다고 한다.

위대한 주석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비범한 명도력, 고매한 덕망으로 20세기 국제정치사에 미증유의 흔적을 남기시었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54차례 685일간에 걸쳐 87개 나라를 방문하셨다. 그 로정의 연장거리는 130만 6150리에 달한다. 주석께서는 해방직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136개 나라의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당수 400여명을 비롯하여 연 7만여명의 외국지사들을 만나 사담하셨다. 그이께서 지니신 절대적권위와 높은 신 명망은 70여개 나라와 국제기구들로부터 받으신 180여개의 최고훈장과 메달, 30여개 도시의 명예시민칭호 그리고 20여개의 외국어 이름있는 대학들의 명예교수, 명예박사칭호들에 그대로 담겨져있다. 그이에 대한 만민의 다름없는 존경과 신뢰의 정은 169개 나라의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과 개별적인사들 그리고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이 올린 16만 5920여 점의 지성어린 선물마다에도 어려웠다. 중국과 몽골에는 주석의 동상이 건립되고 세계적으로 국제김일성상이 제정, 수여되고있으며 세계 100여개 나라 480여개의 거리, 기관, 단체들에 그의 존함이 모셔져있다. 주석께서 서거하신 후에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벗들이 선물들, 훈장, 메달, 명예칭호들을 드리고있다.

충중한 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어버이주석께서는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신다.

본사기자

주제88(1979)년 1월 1일은 려연구선생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뜻깊은 날이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와 그의 동생들을 모سم 만나시었다.

그들을 만나신 수령님께서 는 왜 이제야 왔는가고, 너희들이 보고싶었다고 하시며 너희들이 나한테 얼마나 편지를 할수 있는지 아니냐고 나무라시었다. 그러시고는 일꾼들에게 이들이 려운형선생의 자녀들이라고 하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그들과 기념사진도 찍으셨고 려운형선생에 대해서와 려연구, 려연구 두 자매를 처음 만나시던 일도 감회깊이 추억하시었다.

한때 조선인민당 당수였던 려운형선생은 해방후 여러차례 북행을 단행하여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보시고 새 조선건설과 조국통일과 관련한 말씀을 접하면서 그의 충직한 위인적정도를 매혹되었다.

조국의 자주통일독립을 지향하는 려운형선생의 애국심과 활동을 눈에 든 가지처럼 어린 외세와 남조선의 반역통치배들의 박해와 탄압은 그가 평양을 다녀온 후로 더

## 절세의 위인을 우러러 몽양을 대신 하소서

속 로광화되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려운형선생은 연구와 원 구 두 딸을 불러앉혔다. 그리고는 《...나는 너희들을 김일성주석님께 맡기기로 했다. 너희들의 앞길을 열어주실것을 장군님께 부탁드렸다. 곧 떠나거라. 장군님께서 기 있으면 다 나한테 말할 해야 한다고 다스린 정을 기울이시었다. 김정숙녀사께서도 그들의 밤상에 반찬 한가지라도 더 색다른것을 놓아주기 위해 원심을 쓰셨고 그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복습과 연습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생

이렇게 되어 려연구선생은 1946년 7월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북으로 오게 되었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숙녀사의 극진한 은정과 보살핌속에 군심격정을 모르고 배우며 성장했다. 어 버 이 수 려 님 께 서 는 친어버이심정으로 그에게 너희 아버지가 나를 믿고 너희들을 보내냈다. 아버지의 부탁대로 난 너희들을 공부 잘 시키겠다. 무엇이든 곤난한

학의 구석구석 따듯이 돌보아주실게다.》라고 말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려연구선생은 1946년 7월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북으로 오게 되었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숙녀사의 극진한 은정과 보살핌속에 군심격정을 모르고 배우며 성장했다. 어 버 이 수 려 님 께 서 는 친어버이심정으로 그에게 너희 아버지가 나를 믿고 너희들을 보내냈다. 아버지의 부탁대로 난 너희들을 공부 잘 시키겠다. 무엇이든 곤난한

## 도서 《김정일백과전서》를 주체사상국제연구소에서 출판, 발행식 진행

도서 《김정일백과전서》를 주체사상국제연구소에서 출판하였다.

도서발행식이 2일 인디아 뉴델리에서 진행되었다. 발행식장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 만세!》,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의 위대성과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보여주는 도서, 사진들 그리고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성과를 소개하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발행식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와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공산당, 김일성동지 로작연구청년소조, 김정일로작 연구회, 지식인주체사상연구회,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등 정당, 단체의 인사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참가하였다.

인디아주체사상연구회 명진선선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발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비슈와나스는 도서 《김정일백과전서》의 기본 내용과 그 발행식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일장군님은 인류역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회세의 사상리론가, 철학자, 정치가

# 조선의 영광, 민족의 대행운

# 통 남 산 의 맹 세

절세의 애국자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의 현명한 명도에 의해 이 땅에 펼쳐지는 강성 국가의 미래상은 그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맹세와 의지가 안아온 빛나는 현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은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엄숙한 맹세의 발현이며 드림없는 실천이다.

일찌기 가슴부부는 희망과 포부를 안시고 륭남산에 오르신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떠메고 나아가기라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담아 심장으로 터놓으신것이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이다.

해수는 륭남산마루에 서니 삼천리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일찌기 력사의 새벽길을 헤치시며 몸이 찢겨 가루가 되어도 대를 이어 굴함없이 싸워 기어오르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야말 지원의 숭고한 뜻이 어린 김형직선생님의 맹세,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결심을 품으시고 수령님께서 다시신 포령마루의 맹세를 계승한 륭남산의 굳은 맹세였다.

위인의 맹세는 세월의 흐름속에서 그 진가가 검증되는 법이다.

그때로부터 어언 반세기를 헤아리는 수십여성상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굳게 다진 그 맹세를 지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애국애족의 기나긴 장정을 이어 오셨다.

륭남산의 맹세를 심장에 새기고 공장과 농촌, 건설장과 조국방선을 비롯 한 온 나라 방방곡곡을 걸음없이 찾으시며 천만군민을 부강조국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속에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 공화국의 존엄이 온 누리에 높이 펼쳐졌다.

맹세는 완강한 인내와 비상한 열정, 뚜렷한 목표와 빛나는 실천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지난 세기 90년대 공화국에 도착했던 최악의 시련도 륭남산의 맹세로 가슴 불태



륭남산의 맹세를 받들어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 김일성종합대학에서 -

우시며 헤쳐오셨다. 그 맹세가 있었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수호되고 공화국은 락원의 길, 강성국가건설의 지름길로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었다.

대덕산초소, 351고지, 1211고지, 오성산, 초도...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무궁한 행복을 위하여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시며 끊임없이 이어가신 선군길, 전선길에서 지는 달, 솟는 해를 맞으시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 지신 장군님의 명도밑에 조국은 어떤 침략력도 감히 범접 못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펼치게 되었다.

단순히 고난을 견디어낼것이 아니라 최강국의 높이로 추고쳐야 한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는 오늘에 위대한 현실을 낳았다.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른 인공지구위성들, 수출처럼 솟아난 굴지의 정으로 보살펴주셨다.

그들의 안부도 녀려하시고 직업과 생활형편 그리고 자녀들의 장래문제까지 세심히 관심하신 수령님이지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함없는 숭고한 사랑과 은정에 뽀뽀하여 려연구선생은 수령님께 《우리 형제 아홉남매중에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 형제들만 살아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다 제명을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 올리며 눈시울을 적셨다.

그의 진정어린 이 말에 목젇 많은 길을 걸었던 러세가문을 따듯이 안아 보살펴주신 위대한 생의 은인 에 대한 고마움이 어려 있었다.

민족의 어버이를 따르는 길에 통일애국의 삶이 있고 반복이 있다는것은 지나온 나날들에 우리 겨레가 체험한 인생의 진리이다.

본사기자 리경철

계산할수 없는 원리

계산할수 없는 원리에 수령님께서 이런 위대한 민족대단합의 사상과 정경, 신앙이 다르다고 하여도 통일을 위한 애국의 마음만 가지면 그가 누구든 지난날의 허물도 불문에 붙이고 통일애국의 길을 걸도록 하신 것이었다.

재미동포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조국통일 실현을 위한 투쟁에 자신들도 적극 합류하리라 굳게 다짐했다.

본사기자

## 선군침송의 메마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에는 다방면적인 시선을 소유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칭송하는 글이 게재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로씨야방문을 결해서 수행한 로씨야방문 원동력방주제사 대표령전대표 이사예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뛰어난 정치, 경제, 환경 등 여러 면에 대하여도 건설적인 대화를 함수 있었다고 말했다.

2002년 21일 동안에 걸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로씨야방문을 수행했던 전 동원 방주제사 대표령전 권대보 블리프스키도 수행 후 일담을 정리한 《동방특급행차》라는 책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든 활동은 단 한가지 목표, 북주민들에게 안녕과 번영을 안겨주는 데 있음을 확신했다. 내게 가장 값진 것은 다방면에 걸쳐 박식하고 권위와 품격을 갖춘 정치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친분을 나눌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 예 브 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일찍적으로 일하고 다방면의 높은 식견을 가진 지도자라는 똑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를 통 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쌓고 그것을 구현하여 주민들에게 더 행복한 삶을 안겨주려고 노력하고있다고 볼 수 있다.

## 높은 식견, 권위와 품격을 지니신 정치가

실제 전 미국대통령 카터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제 정치의 흐름을 완전히 꿰뚫고있었다고 밝힌바 있으며 전 미국무장관 알브라이트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지도자로 대화가 잘되는 정치인이라고 평한다.

세계 여러 정치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모든 분야에 걸쳐 모르는 것이 없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지도자라고 평하고있다.

이사예브의 언급중에서 주목할 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지식을 소유하고있다는 부분이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에베르스트 산의 기술, 경제 문제들을 꿰뚫고있었다고 하면서 특히 아무르주의 부레야수력발전소를 방문했을 때 발전기의 용량과 발전기 등을 비롯한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올란-우데의 비행기제작 공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전문 기술자들의 함공지식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놀라와 하였다.

세계에서 최첨단과학기술을 이렇듯 완벽하게 장악했던 지도자가 과연 있는지는 생각해보게 하는 사실이다.

최근에 기술발전속도가 너무 빨라 젊은이들도 따라가기 힘들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것을 생각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끊임없는 과학탐구는 자의 총적적인 일일 아닐수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저렇듯 높은 과학지식을 소유하고 과학자들을 적극 격려추 동하고있다면 북에서 무엇인들 못 만들것사.

본사기자









11월이다. 흔히 가을은 립 추부터 립동전날까지라지만 철이 바뀌어도 아직도 가을 빛이 완연하다. 파아랗게 열린 하늘아래 무성함을 떨치던 나무잎들이 빨갛고 노란색으로 예쁘게 단장했다. 산과 들을 온통 울긋불긋 화려하게 물들이고 소슬바람에 한들한들 춤을 추는 단풍잎들은 그 무엇을 속삭이는것만 같다.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된 조국산천에 아름다움을 더해 주며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펼쳐진 단풍! 창조와 혁신의 열풍속에 일떠선 삶의 보금자리마다에서 행복을 누릴 이 나라 인민의 환희의 순간을 예고하는것인가. 인민의 리상 현실로 펼쳐질 2012년 봄을 마중가는 이해의 단풍이여서인지 류달리 아름답게 안겨온다. 축복의 꽃다발, 꽃보라처럼.



**선진기술의 집합체인 액정TV 《아리랑》** 가지고있다. 컴퓨터와 비데오실비의 화면으로도 리용하고 USB기억기의 동화상을 TV에서 직접 볼수 있을뿐 아니라 철저한 품질보증을 담보하는 액정TV 《아리랑》에 대한 수요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본사기자

최근 공화국에서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절실히 요구되는 높은 해상도의 액정TV 《아리랑》이 많이 생산되어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액정TV 《아리랑》은 화면비가 16 : 9, 해상도가 1366×768화소(32inch), 1920×1080화소(55inch), 대조도가 1200 : 1이상이므로 화면이 시원하고 안정하며 밝기와 색도를 조절할수 있다. 높은 해상도와 대조도로 하여 방송동영상과 고해상도비데오영상을 원천화질 그대로 볼수 있는 특징을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과학기술**

**제22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진행**

얼마전 제22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3대혁명전시관 새기학혁신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각지의 과학자, 기술자, 대학생들과 컴퓨터수제양성기지의 중학생들이 개발한 1500여건의 우수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출품되었다. 조작체계 및 보안, 인공지능 및 화상처리 등 16개 분파로 나뉘어 진행된 전시회에서는 경영업과 농업, 금속, 전력, 석탄공업, 철도 운수를 비롯한 경제의 여러 부분들의 발전과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가치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출품되어 참관자들의 관심과 열의를 불러 일으켰다. 그중에서도 최첨단들과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개발하여 생산의 정보화수준을 높인 프로그램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국제컴퓨터바둑경기대회들에서 여러차례 패권을 쥐고 조국의 영예를 떨친 바둑프로그램인 《류경바둑》과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인 고려의학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는 다매체프로그램 《침구학백과》, 《동의보감》 약물열람프로그램들도 참관자들속에서 호평을 불러 일으켰다.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 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는 경제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선된 프로그램들은 현실에 도입되어 나라의 정보과학기술발전과 생산공정의 자동화, CNC화에 적극 이바지하게 됩니다.》

전경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이번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가지는 의의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영-조기계면역프로그램과 컴퓨터모의 경험실습 프로그램 등의 경연, 다방면적인 정보기술교류도 있



이번 제22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현장 모습

**우리 민족의 자랑**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한 조선민족은 고대일본의 문화발전에서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일본의 옷문화도 우리 선조들에 의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원시시기인 야요이시대(B.C. 3세기~A.D. 3세기) 말엽까지만 하여도 일본사람들의 옷은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세 나라 시기에 일본열도에 진출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주민들에 의하여 락후하기 그지없던 일본사람들의 고대옷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3세기말~4세기초 고구려, 백제의 기술자들은 발전된 천짜기기술과 옷제작방법을 일본사람들에게 소개하였다. 283년에 일본에 초빙되었던 백제사람이 일본의 천짜기와 옷제작의 시조로 전제되고있는 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일본땅에 건너간 세나라의 옷 기술자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여러가지 종류의 천들을 생산하였다.

**선조들의 발전된 옷문화가 일본에 준 영향**

고구려사람들은 일본열도에 건너가서 발전된 천짜기 기술을 보급하여 아마나시현과 사이다마현 등 여러곳을 천산지로 변모시켰다. 일본 나라현 동해안의 정창원에는 일본에 전해진 고구려비단인 《고려(고구려)금》의 조각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천을 짤 직접 일본사람들의 옷은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세 나라 시기에 일본열도에 진출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주민들에 의하여 락후하기 그지없던 일본사람들의 고대옷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3세기말~4세기초 고구려, 백제의 기술자들은 발전된 천짜기기술과 옷제작방법을 일본사람들에게 소개하였다. 283년에 일본에 초빙되었던 백제사람이 일본의 천짜기와 옷제작의 시조로 전제되고있는 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일본땅에 건너간 세나라의 옷 기술자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여러가지 종류의 천들을 생산하였다.

**고대시대의 돌침료법**

우리 선조들은 고대시기에 돌침료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치료방법들 중에서 특히 유명하였던것은 돌침료법이다. 돌침료법은 돌로 만든 침을 리용하여 충치를 리스크거나 피부를 찔러 혈맥이 통하게 하는 외과적인 치료방법인 동시에 침혈에 침을 놓아 병을 고치는 내과적인 치료법이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이 고유한 돌침료법은 이웃나라들까지 널리 알려져있다고 한다. 다른 나라의 력사책들에는 《고조선지역의 산우에 옥돌이 많고 그물에 침 돌이 많다》, 《돌침은 고조선에서 온것이다》라는 기록이 전해져오고있다. 본사기자

**발해의 치미**

발해의 치미는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룡천부의 제1절터와 제9절터, 로씨야 연해주에 아브리코프브 절터 등에서 드러났다. 이 치미들은 웅대한 날짐승이 날개를 힘껏 펼치고 날아오를듯 한 모습을 형상화하여 표현한것으로서 뾰족하게 뻗어나간 끝부분과 두 나뉘어 사나운 날짐승의 기백이 잘 나타나고있다. 발해의 치미는 고구려의 왕궁이었던 안학궁터에서 드러난 치미들과 그 생김새 및 장식수법이 거의 비슷하다. 발해의 치미들은 당대의 높은 문화발전준도를 잘 보여주고있으며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나라임을 증명해주는 귀중한 유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단편 소설**

나는 부모님들에 대해 너무도 모르는것이 많았다. 내가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는것이란 어머니가 의사로서 남조선에 고향을 두고 왔으며 한생 남조선의 어느 지방 토질병약을 연구하였고 끝내 성공했다는것 그리고 나는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며 자랐다는것, 어머니도 나를 만나고 도와주신 불을 비비며 꼭 안아주곤 했지만 그 연구때문인지 내게를 떠나있을 때가 많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였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나는 아버지가 왜 서른살이 퍼지 나사야 결혼했으며 거기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

**약 (1)**

글 배경휘, 그림 김윤일

다. 부모의 과거는 나에게 감히 들어다볼수 없는 불가침의 세계였던것이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얼마전에 남조선의 어느 한 제약회사에서 어머니가 연구한 토질병약에 대한 상한 자료를 요구하여 해당 기관에 편지를 보내여왔다. 《...차지방에서 발생한 원 인불명의 질병에 대해 연구하던중 지뢰들은 그 병원체가 한때 그 지방에 만연되었던 토질병균 (H)의 변종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위생조건이 향상되어 그 토질병이 근절된것으로 알았으나 일시 억제되었던 그 병균이 공해로 인한 심한 환경오염으로 다시

활성화되고 새롭게 번이되어 나타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의과학자들은 리해하는 과정에 10여 년전 북조선에서 이 토질병약을 개발했다는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번이된 병원체가 (H)균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귀족이 개발한 그 토질병약이 새로운 질병치료에서 효과적 역할을 하리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귀족이 그 약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청탁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부문의 일군이 그 편지를 아버지에게 전달해준 그 날 저녁 비로소 아버지는 나와 나의 남편을 앉혀놓고 어머니가 그 약을 만든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내

가 아직 모르고있던 새로운 이야기였다. 그날에야 나는 아버지의 가슴속에 어머니에 대한 얼마나 피로운 추억이 새겨져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X 《내가 너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것은 1950년 가을이었다.》 이렇게 서두를 멘 아버지는 뜨직뜨직 무겁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부대의 철수를 보장하고 뒤늦게 후퇴의 길에 오른 우리 중대가 전선부근 어느 산정에 이르렀을 때 나는 우리가 차지한 고지와 잇닿은 바로 결봉우리를 향해 적들이 까맣게 기여오르고있는것을 보게 되었다. 쌓안경으로 봉우리 정점을 유심히 살피던 나는 실연 나무들사이로 위장복을 입은 모습이 언뜻하는것을 발견하였다. 《아군정찰이다!》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때렸다. 정찰병은 한명밖에 보이

◎ 소란한데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 폴병이가 긴 담배를 피우면 여러 질병이나 암에 걸릴수 있다. ◎ 약을 먹은 후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 아침에 깨어나 담배를 피우면 해로운 습관에 영향을 준다. ◎ 당뇨병환자에게는 담배가 매우 위험하다. 본사기자

**유모아 걱정으로 느는 흰 머리카락**

아버지: 《이 녀석 아들: 《명심하겠습니 아, 네가 걱정을 끼치 니다. 그런데 아버지, 면 이 예비의 머리에 할아버지 머리엔 검은 흰 머리카락이 하나,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 돌 놀러만 갔다. 그리 니 제발 걱정정리랑 끼치 지 말아라.》